

지난 10월 17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장.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 겨울 ‘블랙아웃’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오 의원은 “이번 겨울철 절정기의 전력수요는 8,018만kW로 예상하지만 최대공급량은 8,213만kW에 불과하다”며 “예비전력이 100만~200만kW까지 낮아져 원전설비 2기만 운영에 차질이 생겨도 곧바로 정전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말대로 올해 겨울에도 전력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 조차 “이번 겨울 전력사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할 정도다.

겨울 전력 보릿고개 어떻게 넘을까



김 영 필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지경부가 6월 공개한 중기 전력수급 전망을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안을 보면 올해 겨울 예비전력은 93만kW다. 2013년 여름(364만kW)과 겨울(441만kW)도 사정은 빠듯하다. 예비력이 878만kW까지 올라가는 오는 2014년까지는 전력난이 계속된다. 정부의 예측이 더 암울한데 최근의 성장을 둔화를 감안하면 실제 겨울 전력사정은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한다.

문제는 한파와 원자력 발전소다. 올 겨울에는 예전보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전력사용량도 비례해 늘어난다. 이번 여름에도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날씨와 전력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잇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원전도 걱정거리다. 올 들어서만 8번이나 원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다. 신형 원전은 발전량이 100만kW 정도된다. 원전 1기만 멈춰서도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월성 1호기는 11월20일자로 설계 수명인 30년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중으로 승인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속운전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월성 1호기는 일단 11월20일부터 가동을 멈춰야 한다. 그만큼 전기는 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전기수요는 꾸준하거나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답답한 말일 수 있지만 전기를 아껴쓰는 방법뿐이다. 물론 전기의 상당 부분은 가정이 아닌 기업들이 쓴다. 일반 국민들이 아껴쓰더라도 한계는 있지만 제때 공장을 돌려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피크시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들에 돈을 주고 공장가동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짜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수요관리 대가로 기업에 준 돈은 무려 2,820억 원에 달한다.

블랙아웃에 따른 피해는 너무나 크다. 지난 2003년 8월14일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으로 미국은 40~100억 달러, 캐나다는 23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공항과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 마비로 국민들이 불편해했고 수도와 가스처럼 공공기반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큰 혼란이 있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난해 있었던 9·15 정전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여름 내내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안타깝지만 이번 겨울에도 전기 아끼기는 계속돼야 한다. 지경부도 조만간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고, 겨울철 난방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일 같은 소소한 일부터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한다. KEA